

非破壞檢查業界의 當面課題



*李 京 雨
韓國檢查開發株式會社
代 表 理 事

비파괴검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산업사회에 실용되기는 1962년 경이라 전하고 있고 그 이전에 건설된 중화학 시설이나 발전설비는 외국기술자에 의해 검사가 수행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로부터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대단위 중화학 시설과 플랜트 설비가 건설 제작되면서 품질관리 보증과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어 검사사양이 설정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파괴검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비파괴검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을 관리보증한다는 검사 본연의 목적보다는 설정된 사양에 대한 형식적 검사를 수행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현상은 품질관리 보증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는 발주자가 시공과 검사 업무를 시공자에게 일괄적으로 맡게한 결과가 부실검사를 초래하게 한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품질의 중요성을 인정한 외국인 합작투자업체나 국영업체가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여 시공제작과 검사를 분리 발주 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제3 자적 입장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이에 관련된 업체들이 점차로 품질관리 보증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몸에 익히게 되었던 것이다.

해가 바뀌면서 검사물량도 많아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도 늘어 오늘날에는 8개 업체에 약 900

여명의 종사자가 “산업사회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맡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1985년 6월에 과학기술처로부터 전문기술용역업체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그동안 써비스업으로 겪었던 불편과 불이익을 면하게 된 것을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기계산업의 역사가 짧은 우리의 실정은 선진국 수준을 따르기에는 요원하여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그 나라 공업의 수준은 비파괴검사의 수준에 비례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검사기술에 대하여 현재 정책적 차원에서 그 보호 육성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제작하여 수출한 선박이나 플랜트들이 부실한 검사에 의해 품질관리 보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상이 요구되었을 때에 그 한건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주의 길을 막는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록 해외 발주자가 국내 검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시공제작사에 일괄 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 검사에 대한 결과를 경시하거나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로, 검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과외 경비를 들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시공자는 물론 때로는 발주

* 社會福祉法人 聖化院 (示範營農育兒施設) 理事長

자 조차도 형식적인 편법검사를 요구하는 사례이다. 이의 시정을 위하여는 수주제도를 개선하여 구조적으로 시공과 검사는 분리 발주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사수가를 받음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부정검사의 유혹으로부터 검사업체는 보호를 받아야 하겠다.

정부투자기관이나 대기업의 검사용역 발주제도도 경쟁입찰이나 견적입찰 등으로 무작정 저단가 발주를 하게 하는 구조적인 모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업체가 타율에 의한 불규칙적인 업무량으로 인하여 인력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새로 개발된 검사기기의 대체나 검사자의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투자 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는 검사 기술의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기술을 제공받는 용역 발주에 대하여 외국과 같이 엄격한 기술 심사에 의한 “기술

평가 낙찰제”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비파괴검사의 수가는 일부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까운 이웃 일본의 십분의 일도 안되는 저가인데 반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기구나 필름 등 원자재는 막대한 판세를 지불하고 들여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8개 업체 밖에 되지 않는 업체가 좋은 의미의 단합을 하여 적정수가를 받아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고 비파괴검사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종사자들의 검사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일이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발주 시공자들의 의식과 발주제도의 구조적 모순, 영세한 검사업체의 지나친 경쟁의 악순환이 바로 모든 것에 선행되어 개선 되어야 할 우리의 커다란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NIC-KOREA CO., LTD.

韓國檢査開發(代表理事, 李京雨)은 國內重化學플랜트工業에 중요한 檢定業務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Inspection會社를 새로 設立하였음을 아뢰읍니다.

商 號: 韓國NIC檢定株式會社(NIC-KOREA CO.) KOREA INSPECTION & CONSULTATION CO., LTD.

代表理事: 潘榮鎬

電話番號: 465-8253

TLX. : HIDNIC K32968

住 所: 서울市 城東區 화양동 24-35

- 業 務: ① SHOP INSPECTION
 ② MILL INSPECTION
 ③ STRUCTURE INSPECTION
 ④ ELECTRICAL AND ELECTRONIC INSTRUMENTATIONS
 ⑤ TECHNICAL SERVICES
 ⑥ Q.A. & Q.C. CONSULTATION

本協會 會員一同